Global ESG Brief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녹색 금융의 중요성 확대

[KB ESG리서치팀]
ESG Analyst 김준섭, 정혜정, 차성원
joonsop.analyst@kbfg.com
hyejung.jung@kbfg.com
swcha01@kbfg.com

ESG동향

2024년 8월 30일

더 많은 리포트 보기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대해 기후 관련 주주 제안 확대

최근 마무리된 일본의 주주총회 시즌에서 초대형 은행들 (Mitsubishi UFJ, Mizuho FG)이 받은 기후관련 주주 제안들에 대한 찬성률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관련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의 역할 강화와 고객의 기후변화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주주 제안들인데, 각 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찬성률이 예년 대비 한층 높아졌다 (Bloomberg, 8/29).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의 기후관련 전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ESBR (Energy Supply Banking Ratio 이하, ESBR), 즉,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지원 (대여, 대출 등) 대비 청정에너지에 대한 자금 지원 비중을 공개하라는 주주 제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ESBR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저탄소 에너지와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지원을 얼마나 균형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은행 간 비교와 함께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용이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Citigroup과 같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지표를 공개한 한편, Goldman Sachs, Bank of America와 같은 곳은 ESBR 비율을 공개하라는 주주 제안이 상정 후 다소 높은 찬성률 (각각 29%, 26%)을 기록하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업이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ESBR을 최소 4:1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나 대다수 금융기업들은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30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 기대

한국 정부가 8월 30일 지속가능항공유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첫 운항을 개시하면서, 한국 역시 20번째로 SAF를 급유하는 국가로 등재되었다. 한국 정부의 SAF 확산 전략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 (1% 내외)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한항공의 하네다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 6개의 국적 항공사들이 연내 모두 참여 (일본 노선 주 1회 1% SAF 혼합)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탄소 저감 비용이 항공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SAF에 사용한 비용에 따라 국제 항공 운수권 배정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정부의 SAF 확산 전략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수혜를 기대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SAF 사용 확대 의무화 속도 (EU 2025년 2% SAF 혼입 의무화 → 2050년 70%의무화, 일본 2030년 10% 의무화)가 빨라 수요 (2024년 생산 18.8억 리터, 전체 항공 수요의 0.53% 수준 → 2050년 4,000억 톤, 100% 수준)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나 SAF는 설비에 대한 투자 규모 (50만톤 규모, 약 1조원)가 커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항공유 대비 2~5배 비싼 가격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에너지는 SAF의 상업 생산을 위해 원유 처리 시설을 개조할 것이며, 다른 국내 정유사들은 전용 설비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rea Economic Daily,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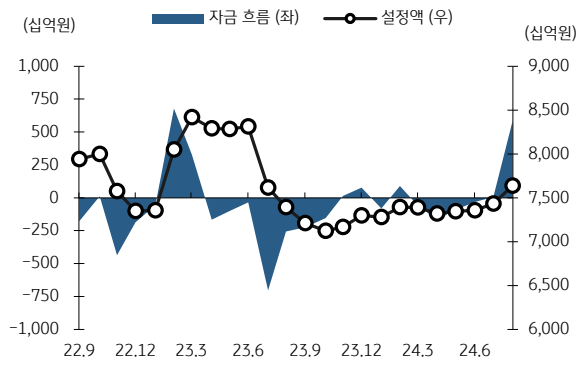
국내 주요 정유사의 SAF 관련 계획

정유사	계획
SK이노베이션	- 2026년 상업 생산 목표 - 폐식용유 관련 기업 지분 투자
GS칼텍스	- 대한항공 등과 SAF 실증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바이오 원료 정제 공장 건설
S-Oil	- 국내 정유사 최초 SAF 생산 ISCC 획득 - 바이오연료 활용한 제품 시범 생산
HD현대오일뱅크	- 일본 마루베니상사에 SAF 수출 - 대한항공과 SAF 사용기반 구축 MOU 체결

자료: IEEFA,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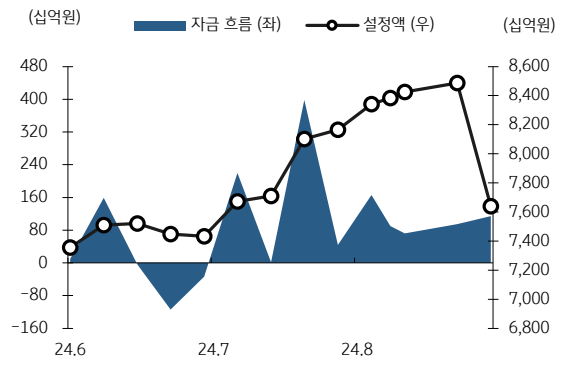
ESG 펀드로 본 ESG 투자 동향

그림 1. 국내 SRI 펀드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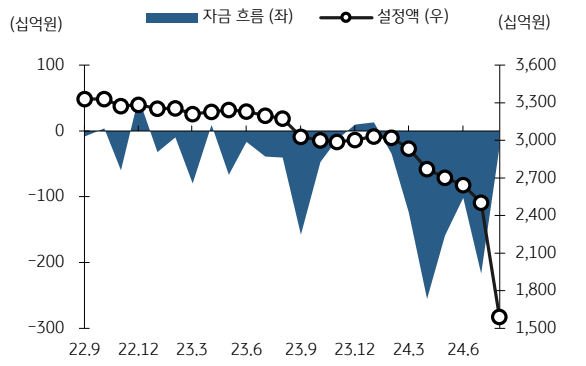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2. 국내 SRI 펀드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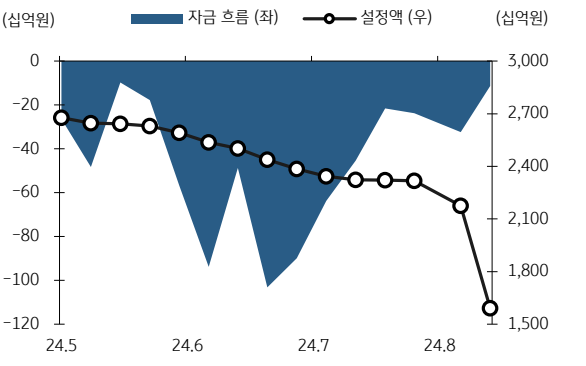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3. 국내 ESG 주식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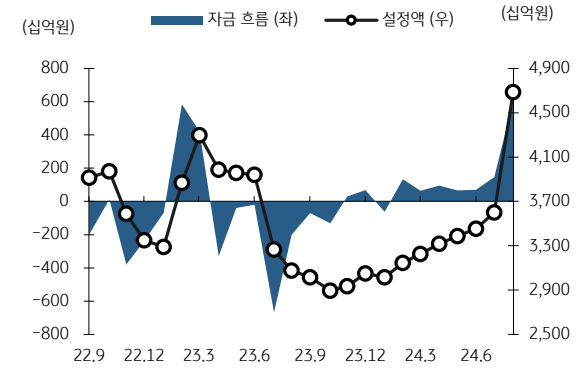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4. 국내 ESG 주식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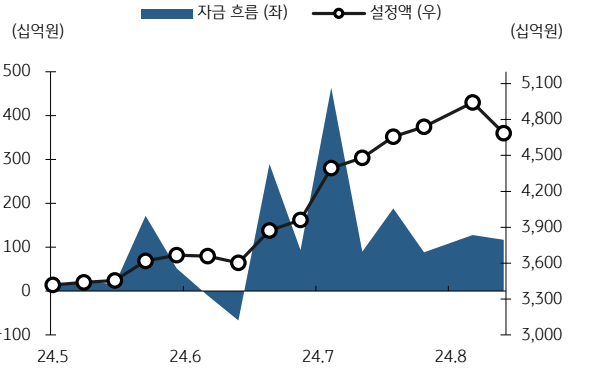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5. 국내 ESG 채권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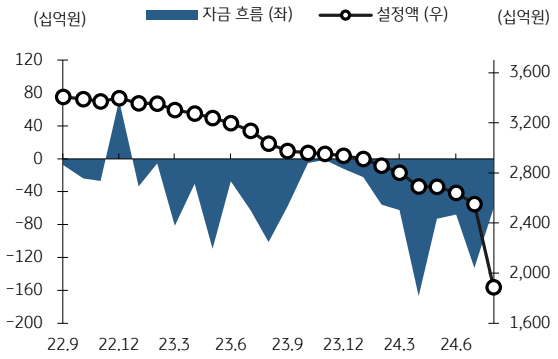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6. 국내 ESG 채권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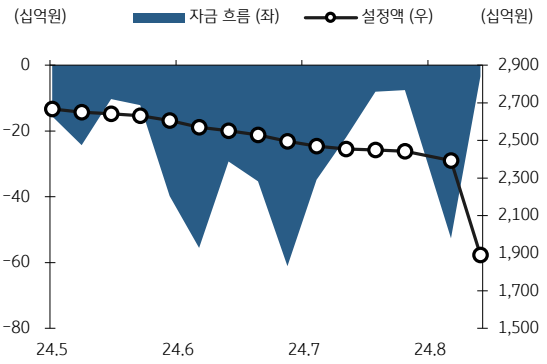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7. 국내 녹색성장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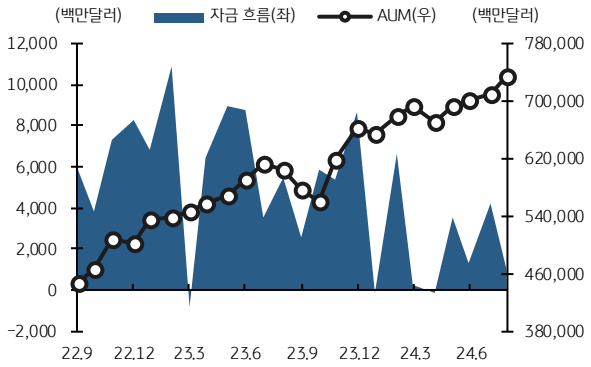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8. 국내 녹색성장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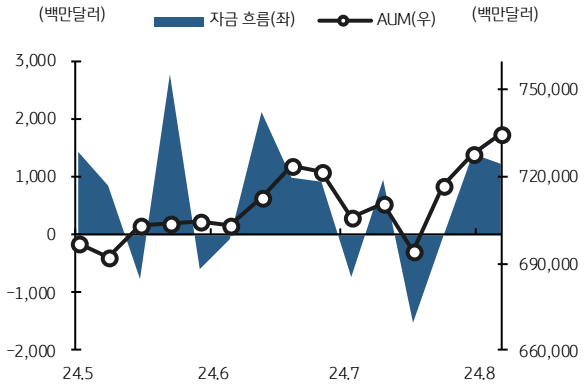
그림 9. 글로벌 ESG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자료: Factset, KB증권

주: 국내외 1,950개 ESG ETF. 상장폐지/청산/인수 반영.

그림 10. 글로벌 ESG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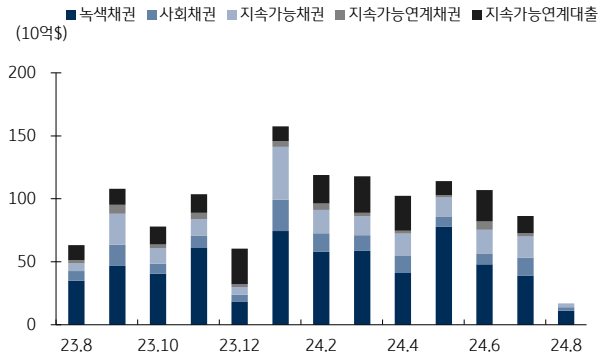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주: 국내외 1,950개 ESG ETF. 상장폐지/청산/인수 반영.

ESG 채권발행 시장 동향

그림 11. 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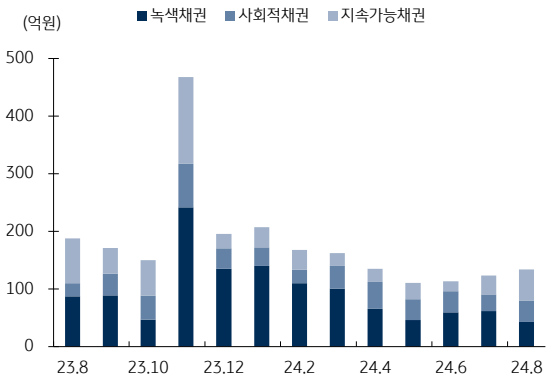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1: 2024.8.30 기준

주2: 24년 8월은 누적 발행량

그림 12. 국내 ESG 채권 거래량 (월별)



자료: KRX, KB증권

주1: 2024.8.30 기준

주2: 24년 8월은 누적 거래량

표 1. 최근 한 달간 국내 ESG 채권 발행 현황

발행기관	채권종류	총 발행 금액 (십억원)	발행 금액 (십억원)	만기	발행일	만기일	국고채 대비 (bp)	등급 대비 (bp)	발행사 대비 (bp)	발행목적
JB 우리캐피탈	녹색채권	50	50	3Y	24/8/30	27/8/30	65	0	0	태양광 설비 및 무공해 차량 금융상품 제공
포스코퓨처엠	녹색채권	80	80	FRN	24/8/28	27/8/28	FRN	FRN	FRN	-
기업은행	사회적채권	820	560	1Y	24/8/22	25/8/22	15	-9.4	-9.8	-
			100	1Y	24/8/21	25/8/21	15	-9.4	-9.8	
			160	2Y	24/8/21	26/8/21	15	-0.6	-0.6	
기업은행	사회적채권	460	70	FRN	24/8/20	25/8/20	FRN	FRN	FRN	-
			170	1.5Y	24/8/20	26/2/20	22	2.6	2.6	
			220	3Y	24/8/20	27/8/20	19	1.7	1.7	
기업은행	사회적채권	400	400	1.5Y	24/8/19	26/2/19	22	3.4	3.4	-
기업은행	사회적채권	190	190	-	24/8/16	25/8/16	-	-	-	-
		110	110	1Y	24/8/14	25/6/14	16	-4.4	-4.9	
		260	260	2Y	24/8/14	26/8/14	15	2.9	2.9	
신한은행	사회적채권	300	300	10Y	24/8/13	34/8/13	19	-41.3	-41.3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기업은행	사회적채권	100	100	1.5Y	24/8/12	26/2/12	15	1.8	1.8	-
신한카드	녹색채권	150	120	3Y	24/8/8	27/8/6	39	0.4	0.5	무공해 차량 관련 금융서비스 등
			30	5Y	24/8/8	29/8/8	38	0.6	0.9	
우리카드	사회적채권	190	60	1.5Y	24/8/6	26/1/6	38	3.5	5.1	영세, 중소 가맹점 금융지원
			10	1.5Y	24/8/6	26/2/6	38	3	5	
			30	2Y	24/8/6	26/4/6	45	8	10	
			10	2Y	24/8/6	26/8/6	42	5	7	
			30	2.5Y	24/8/6	26/11/6	51	8	11	
			50	3Y	24/8/6	27/8/6	52	6.2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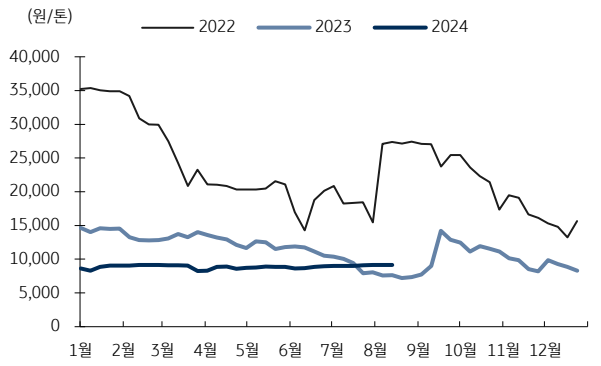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B증권

주1: 주택금융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물량 제외

주2: 2024.8.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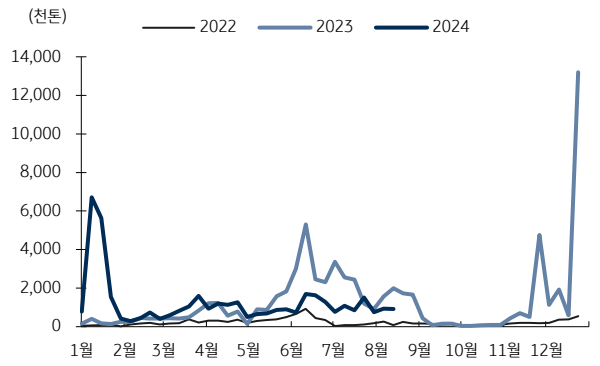
탄소배출권 및 에너지 전환 동향

그림 13.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및 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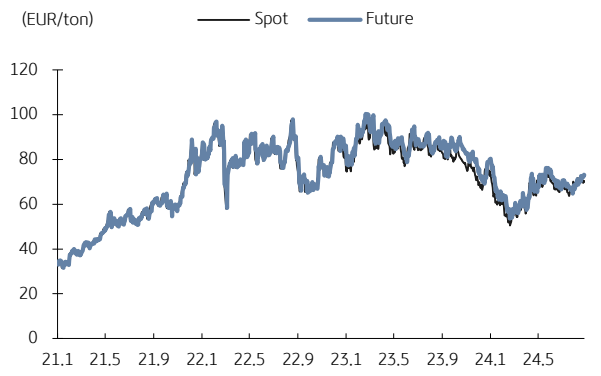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B증권

그림 14.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량 추이 및 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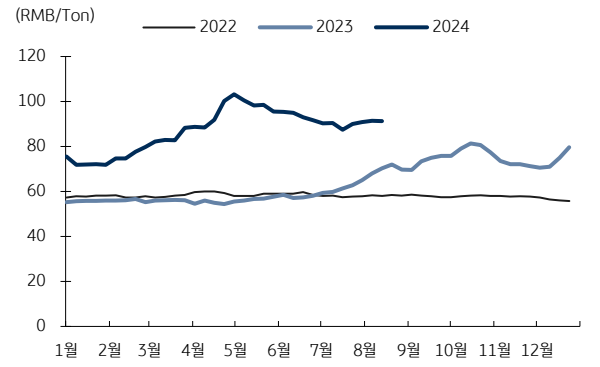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B증권

그림 15.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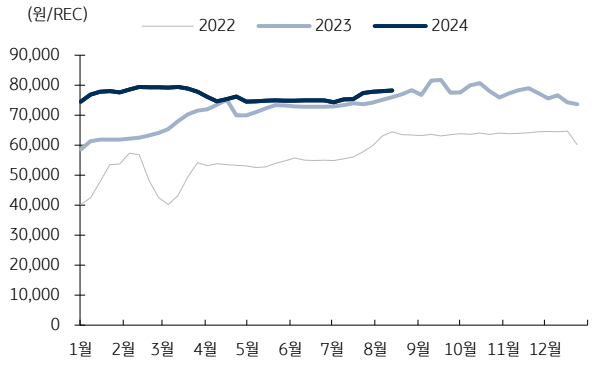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KB증권

그림 16.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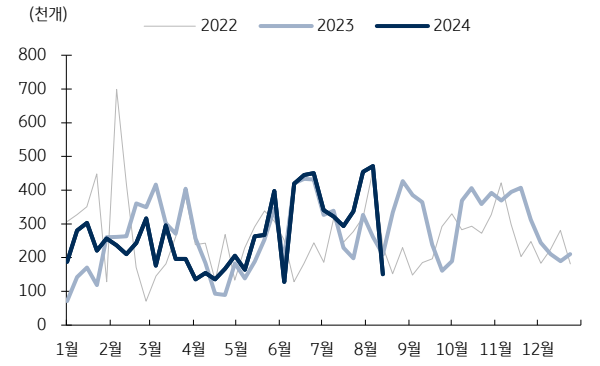
자료: CEIC, KB증권

그림 17. REC 가격 추이 및 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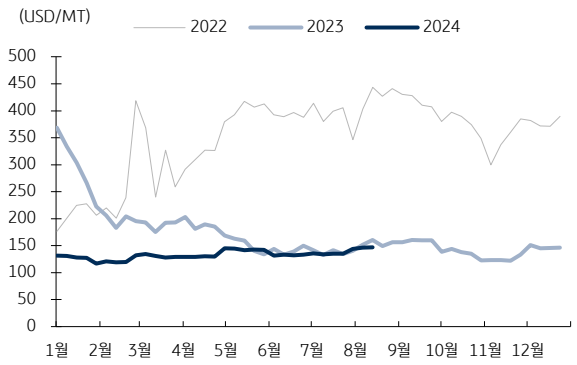
자료: EPSIS, KB증권

그림 18. REC 거래량 추이 및 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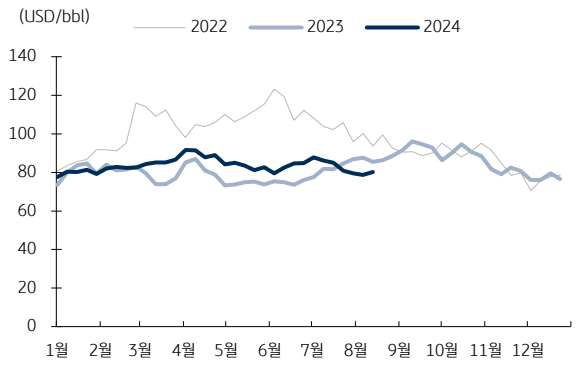
자료: EPSIS, KB증권

그림 19. 글로벌 석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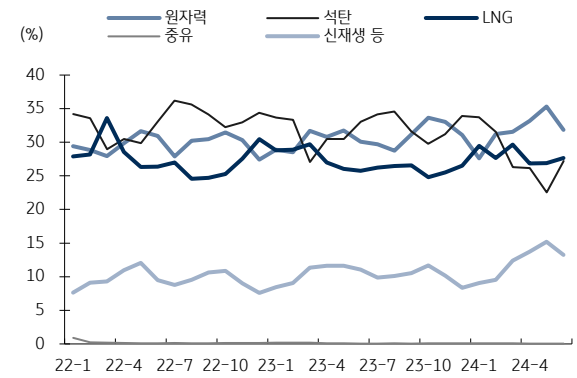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20. 두바이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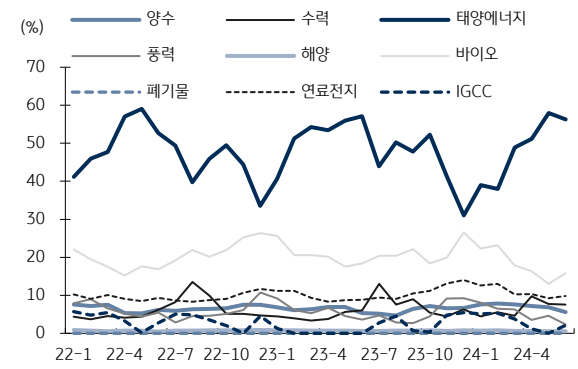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21. 국내 발전원별 발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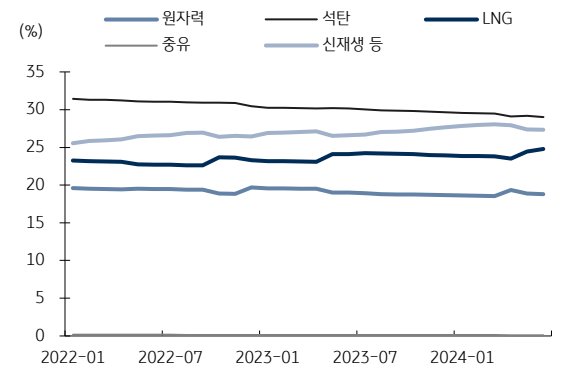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2. 국내 신재생발전원별 발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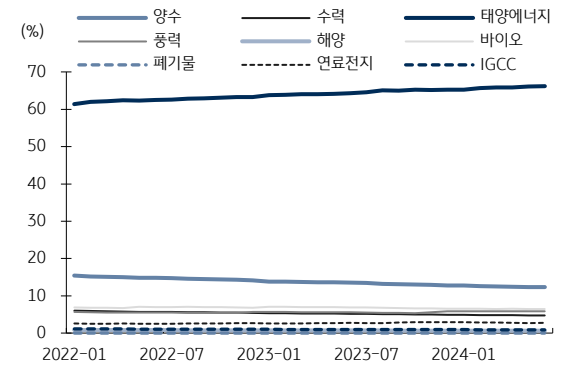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3. 국내 발전원별 발전 설비 비중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4. 국내 신재생발전원별 발전 설비 비중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ESG 등급, ESG 관련 논란 이슈 동향

표 2. 최근 한 달간 MSCI 기준 ESG 평가 등급 변동 기업 (Rating)

기업	종목코드	날짜
(Upgrade)		
HD현대	267250	8/28
신한지주	055550	8/28
LG에너지솔루션	373220	8/28
하이트진로	000080	8/27
포스코DX	022100	8/9
키움증권	039490	8/6
대신증권	003540	8/6
클래시스	214150	8/2
태광산업	003240	7/29
대한유화	006650	7/29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7/26
휴젤	145020	7/26
(Downgrade)		
아난티	025980	8/27
동국제약	086450	8/27
알테오젠	196170	7/29

자료: MSCI Website, KB증권

표 3. 최근 한 달간 ESG 관련 이슈 발생 국내 기업 (Controversial Issue)

날짜	기업 (종목명)	종목코드	논란 이슈
8/7	티웨이항공	091810	국토부,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뉴시스)
8/7	아시아나항공	020560	국토부,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뉴시스)
8/7	제주항공	089590	국토부,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뉴시스)
7/25	녹십자	006280	'백신담합' 무죄 반전...공정위 과징금 409억 소송 촉각 (데일리팜)
7/24	에스엠	041510	첸백시, 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갈등 심화 (연합뉴스)
7/24	카카오	035720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연합뉴스)

자료: 언론종합, KB증권

주: *는 금주 추가 이슈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SK이노베이션]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 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